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우리로 한 번 품격 높은 지도자를 갖고 싶다는 것은 나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노년의 만물라가 퇴임 후에도 여전히 세계인의 사람과 존경을 받는 것을 보거나, 대통령의 가벼운 처신이 해외토포의 맨 첫머리에 오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품격 높은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간절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지도자를 가질 수 있을까.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그것은 아무래도 요원한 일인 것 같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인상, 그들이 성장이나 행태에서 우리는 고결한 품격 같은 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토리 키 재기 같이 고만고만한 범여권후보는 그렇다. 차고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야당후보들은 또 어떤가.

얼마 전, 짜고 치는 고스트 같은 그들의 청문회에서 개별연대를 마구 휘저으며 막살아 온 어느 후보의 재산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다. 수백억원대의 도곡동판이 당선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 비싼 땅

이 내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대답을 해놓고, 그것이 참으로 명답이었노라고 저희들끼리 희희낙락, 자평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차라리 절망감 같은 것을 느꼈다.

품격 높은 지도자를 가지고 싶다

또 다른 후보는 5·16군사쿠데타는 구국의 혁명이고, 유신정변은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연좌제에 멍들었으니, 그를 그의 아버지에 연좌시킬 생각은 없다. 또 그의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이해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와 1인 권력의 절대화와 영구화를 획책한 유신정변을 미화하는 역사의식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문제다. 그와 같은 역사의식 아래서는 모든 진실은 다시 땅에 묻힐 것이며, 독재와 폭압의 망령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그 아버지 대에 이어 21세기에도 또다시 이 땅에서 민주화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 자신이 얼마 전 장준하선생 부인을 찾아가 사죄한 것도 거짓된 쇼였고, 유신정권의 피해자를 향해 죄송하다고 한 것도, 그 모두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손학규 전 지사가 한 나라당을 뛰쳐나가면서, 한나라당을 가리켜 수구병전세력으로 군사독재권력의 잔재라고 말한 그 모두가 진실이요,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할 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자신은 1%의 흡집도 없는 사람으로, 1백%의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라고 내세우는 거지와 워선이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정수장학회·영남대·전우환으로부터 6억원의 정채 불명부의 돈을 받은 문제 등 수도 없이 많은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그가 1%의 흡집이 없는 후보라며, 염치나 부끄러움은 물론 겸손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인가. 아아, 저역사의 역주장이여, 철면피함이어.

비록 대의를 위해 박정희를 살해할 수 밖에 없었지만, 박정희가 껍뻍되는 것을 끝까지 삼켰던 김재규가 “공개된 법정에서 밝힐 수는 없는 것이지만 꼭 밝혀줄 필요가 있다”면서 제출한 1980년 1월 28일 자료 편 ‘항소이유보충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총재에 최태민, 명예총재에 박근혜였는데,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큰 영예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심지어 민원수석, 박승규 비서관조차도 말도 못 꺼내고 중정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박광현 당시 안전국장을 사귀어 상세한 조사를 시킨 뒤, 그 결과를 보고하였던 것이나 박대통령은 근혜양의 딸과 다른 이 보고를 믿지 않고, 직접 친국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면서도, 근혜양을 그 단체에서 손 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근혜양을 총재로 하고,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려놓아 개혁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정경에서 한 조사보고서는 현재까지 안전국(6국)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문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아파트 관리비 표준화 시급하다

광주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에 따라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동전기·수도료의 경우 단지별로 6~7배까지 차이를 보일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방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아파트연합회와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108곳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 관리비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3.3㎡당 관리비는 984원이었다. 반면 관리비가 가장 많은 아파트는 2천437원 이었다. 무려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격차는 공동전기 및 공동수도료 부과 내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동수도료의 경우 3.3㎡당 2원에서 139원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공동전기료는 단지별로 5~6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아파트는 관리비 내역서를 전 주민에게 배포하지 않고 계시판

에 부착하거나 아예 제작조차 하지 않았다. 경비비 역시 일반 관리비와 분리해 부과돼 있으나 30% 정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승강기 검사비 및 수선 유지비를 일반 관리비로 통합 부과해 관리비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물론 아파트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하기는 어렵다. 용역회사나 건축업도 등에 따라 단가가 다를 수 있고, 공동전기료나 수도료는 공급회사의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같은 규모임에도 관리비가 몇 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수목적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들간에 불신만 낳는다. 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올해부터 의무화된 관리비 내역 공개와 표준관리비 내역서 사용 등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애매모호한 관리비 내역서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사실로 드러난 휘발유 공장도가 ‘뺨뼉기’

정유업체들이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휘발유 제품 가격이 정부와 석유공사의 집계치보다 1당 40원가량 싼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석유제품 가격의 ‘뺨뼉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30일 처음 발표한 ‘6월 석유제품 실제판매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이 대리점과 주유소에 납긴 휘발유 실제 세전 가격은 1당 563.32원이었다. 하지만 정유사들이 산자부에 보고한 공장도 가격은 1당 603.26원이었다. 실제치보다 39.94원이나 부풀려진 셈이다. 경유의 실제 판매가격도 1당 532.61원으로, 공식 집계치 610.45원에 비해 77.84원가량 낮았다.

정유사들은 실제 판매가격과 기존 공개가격의 차이에 대해 시장이 공급과잉이라 기준가격을 다 받지 못하고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는 데 그것이 이번 나온 가격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대리점 또는 주유소의 위치나

판매량, 경쟁사의 동향 등을 감안해 대외적 광고가격보다 할인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유소들이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제로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유사들 역시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실제 공급하는 가격을 언론 공표가격보다 낮게 책정, 유통 마진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해 원유가 폭등을 빌미로 부담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정유사와 주유소의 공장도 가격 논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본 셈이다.

지금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다. 따라서 정부는 공장도 가격의 불투명성이 밝혀진 만큼 주유소의 소매가격이 적정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은 물론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경숙

‘청소년헌장’의 ‘청소년의 권리’에는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방학을 맞아 해외로 언어연수나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로 인종차별정착이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방학으로 중심을 격정해야 하는 많은 아이들이 존재하는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또 학교 교육의 한계와 함께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의 기능적 통제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부적응 행동을 나타내는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위기청소년들은 가정·학교·사회는 가출청소년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제3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의 일환으로 청소년 가출 예방·선도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쉼터 등 국가 청소년복지 인프라 확대 및 지원이 강화됐다.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제공 및 보호선도 활동 등의 일시보호와 개인·심리·사회적 욕구를 파악하여 비행과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상담활동 및 의뢰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로 되돌아 가도록 돕고 있다.

건강한 청소년이 우리의 희망

지역상담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일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청소년관련기관 및 시설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전문 서비스 및 활동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해 위기청소년들에게 전문적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정·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CYS-Net)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건강한 청소년, 꿈을 가진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책지향점과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참여와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의 균형잡힌 삶과 환한 미소를 간절히 소망한다.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사무처장〉

‘자유 맥’ 치킨 런



‘치킨런(Chicken Run)’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닭의 입장에서 보면 포악하지만 한 트루디 여사의 강제노동 수용소같은 닭농장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간 닭들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외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서기 위한 대탈출을 그린 영화다.

안박에 가까운 클레이메이션 연출 기술 및 발랄한 패러디로 영화관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로, 퇴화된 날개를 훈련시켜 자유를 갈구하는 닭들의 투쟁이 잘 그려진 영화였다.

우치 동물원 닭들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작년 겨울 폭설로 조그만 간이 닭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

대부분은 안에서 꼼짝도 못했지만 몇 마리는 그 틈을 노려 탈출을 감행했다.

탈출한 녀석들 대부분은 생포됐는데, 유독 암탉 한 마리만은 죽어라 내뺀 바람에 잡는 걸 잠시 포기했다. ‘뛰어보자 부처님 손바닥이지’라며 한 번 두고 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탈출한 뒤에도 미련이 남았을까, 아침에 꼭 동물사 주위를 어슬렁거렸고 사람을 보면 산으로 쫓겨다니는 생활을 반복했다.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도 자연스레 바뀌었다.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도 괜찮았다. 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굳이 맡은 안했지만 말이다. 그 뒤 이 암탉은 사람들의 발 밑 속에, 당당히 동물원 내를 주야로 활보한다.

이 녀석의 이름은 ‘자유 맥’이다.

◇ 최충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전공 구분없는 전문의 진료, 의료수준 떨어뜨린다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았다. 6년전에 첫째 아이를 낳을때만 해도 집 주변에 산부인과가 많았다.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조차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둘째를 갖고 부터는 집 주변에 있던 산부인과들이 다 사라졌다.

알고보니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돈이 안되니가 여기저기서 폐업하고 성형수술 의사가 전향해서 개업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때문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갈때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태아 검사와 각종 초음파같은 검사를 하러 다닐 때는 아주 먼거리를 다니느라 힘도 들고 교통비도 많이 나왔다.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경기가 어려워 성형 수술 환자가 줄어들

無等鼓

야구와 동업자

한국의 프로야구 투수에서도 선수로 활약한 바 있는 마이클 콜바(35)라는 미국 프로야구 타격코치가 지난 29일 타구에 맞고 숨지자 야구라는 스포츠가 갖는 위험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굳이 이런 끔찍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야구는 분명 ‘무서운 경기’다. ‘야구의 성서’라 불리는 레너드 코페트의 1967년 명저, ‘야구란 무엇인가(The Thinking Man's Guide To Baseball)’의 첫 페이지 첫줄 첫단어가 ‘무서움’이다.

최고의 컬럼니스트로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바 있는 코페트는 ‘야구경기를 설명할때 가장 먼저 꺼내 들어야 할 화두가 바로 무서움’이라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사일처럼 날아오는 공을 일단 피해야 하는 본능과, 최선을 다해 때려 내야 하는 욕망사이의 이물배반적 심리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격이라고 말한다. 야구에서 공포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투수가 고의로 타자의 머리를 겨누어 공을 던지는 빈볼(beanball)

이러한 공포심을 짐작케 했다.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집착은 이해가 가지만 화풀이 수준의 위험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승자도 패자가 있어 존재하는, 그들 모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야구로 먹고사는 동업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최현호 체육·여름매체부장 khh@

피서철 바가지 상흔 근절돼야 관광수입는다

본격적인 피서철로 접어들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해수욕장의 바가지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과 상인들간에 마찰이 자주 잦다.

해수욕장의 상인들은 여름 한철 반짝 경기를 틈타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하지만 외지인들은 바가지에 속지 않기 위해 먹을 것들을 차에다 가득 싣고 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외지인들의 속사정을 백번도 더 이해

해야 한다. 할인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즐비한데 무엇 때문에 해수욕장에 와서 몇배나 비싸게 물건을 사겠는가.

따지고 보면 바가지 싸워서 큰 이익을 보는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 바가지라는 인상만 심어줘 밖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게 만들고 그래서 정상값을 받을때보다 되려 더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승민·순천시 교량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회2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